

804

Final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자치단체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오늘의 인류에게 부과된 명제는 금년 가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예정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를 앞두고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경제적 활력, 환경의 질,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의 상호 관련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개념으로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현재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극히 부분적인 정책에 한정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 개념을 통합정책화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인 <유엔의제21>의 제28장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에 게재되어 있는 활동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관리자인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어서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지역단위의 지방의제21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149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완료하였고, 48개 자치단체는 수립중에 있다. 지방의제21실천기구는 158개 지자체에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녹색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제21추진 전국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기구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국제추진기구인 ICLEI에 가담하므로 국제적인 교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희망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있는 내실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실이란 ①행동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실천주체인 시민, 기업, 정부의 대등한 협력관계인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졌는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정보공개가 적정한가 ②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자치를 가능케하는 권한이양과 함께 필요한 재정과 인력과 기술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등이 점검되고 확보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2002년도 중점사업은 6만여명의 각양각색의 이익집단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금번 WSSD에 보다 많은 자치단체대표들이 참가해서 경험을 나누고 국제연대를 강화하게 하는데 두어야 함을 건의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크게 갖는다.

234개 중 9개로 144, 1개 중 (CS D) 7개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Partnership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global Partnership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210개 중 2개 안함 가능함)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1980년대 중반 이후 환경 문제와 개발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인류에게 부각된 바 있다. 유엔 개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의하고 있다. '개발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는 채로 발전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특히 환경 문제에 가장 적용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 개념을 환경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지>의 제282항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있다. 그 이유는 40강으로 구분되어 있는 세계 각국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개입, 이해, 그리고 참여의 지역별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차원에서 정책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경 정책의 실현을 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현재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149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의 회계로 수립한 바 있고 48개 단체가 환경부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추진기관은 158개 단체이며 추진기관 지위로는 현재 82개 단체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ICDI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행정제도에 의해, 기업, 정부에 대응하는 행정관제인 환경부에서부터 비롯되어 전방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이익기관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정책을 관철케 하는 제도와 인력 및 기술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지속가능한 지역개발(환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접근을 위한 정책의 실현 등이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본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의 보다 구체적인 정책, 기구, 학제, 시범단체 등의 다양한 이익기관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유엔 WSSD에 자주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정책제언과 국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지방자치 단체 국제화 재단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단체 국제화 재단에 설립되고,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국민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2. 지방자치단체

관인생략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Korea Local Authorities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Relations

우110-721 서울시 종로구 남부동 5 로얄B/D 720호 / 전화 (02)02-2170-8036 FAX (02)737-8970 담당: 김강나

정 보 제 호

시행일자

수 신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님

참 조

선			지	
결	일자		시	
첩	시간		결	
	번호		재	
수			·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제 목: 소장님 칼럼 기고요청

1. 우리 재단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16개 광역 및 232개 기초단체의 국제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자치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행사, 자매결연사업, 경제통상협력사업, 해외연수 및 국제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재단 간행물(지방의 국제화 포럼)에 소장님의 칼럼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꼭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요청내용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견해

2) 분량 : 원고지 7매내외

3) 기한 : 2월 21일 (목)

4) 보내주실 곳 : axel@chollian.net

5) 기타 : 원고료지급을 위해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책자 받으실 주소, 그리고 소장님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 본 재단 간행물 소개 : 지방의 국제화 포럼은 4,100부 발간되며, 전국 248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부)의회의장 및 국제관계공무원 등에게 배부됩니다.

첨부 : 재단 정기간행물 편집위원 1매. 끝.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사장

지방의 국제화포럼

Globalization Forum

編輯委員會 委員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책	비고
발행인	임수복	재단 이사장	前 경기도지사
편집인	김완기	재단 상임이사	前 광주광역시 부시장
편집위원	김용기	재단 정보지원국장	행정자치부 파견
	이종배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송병욱	KOTRA 투자전략팀 과장	
	이인숙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지용희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KDI국제대학원 교수	
	이윤식	승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복	전국대 행정학과 교수	

수신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님 귀하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국제분과 위원회 위원장님)

송신 :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정보지원국 길강복 전문위원 (TEL 2170-6036)

내용 : 위원장님의 칼럼 요청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국제화재단의 길강복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작년 2월에 개최한 환경세미나(한일 지방의제 21 워크숍 in Seoul)에서 한번 뵈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 임수복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연락을 꼭 드리라고 하셔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위원장님의 원고를 게재하였으면 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